

오직 믿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으로 -복음으로 여는 로마서-

히박국 2:4, 로마서 12:14-21

정윤돈 목사님

오늘은 중요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로마서는 종교개혁의 근거가 된 말씀이며, 로마복음화의 근거가 된 말씀이다. 여기에서부터 천 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 로마서는 신앙의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영적 서밋에 이르기까지, 그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말씀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으로'이다.

서론 : 로마서 개관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다. 서론에서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기까지의 선교 여정과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1) 로마서를 기록하기까지의 선교 여정 :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 고향에서 10년, 아라비아에서 3년, 다시 성경 전체를 복음 관점에서 읽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바로 나가서 전도했다. 계속 그렇게 해도 되었을 텐데, 바울은 준비를 십 수 년 동안 한 것이다. 구약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후 안디옥교회의 초청을 받아 가서 사역을 하게 되고, 3차에 걸쳐 전도여행을 하게 된다. 1차 전도여행을 했던 지역은 구브로, 이고니온, 루스드라 지역이다. 이곳은 남갈라디아 지역이며, 바울의 고향과 가깝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다. 2차 전도여행은 성령인도를 따라,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 모든 복음 사역을 총망라해서 집중해서 응답받은 것이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의 두란노 사역이었다.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모든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대역사를 일으킨 후에, 우상숭배자들의 폭동으로 인해 에베소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다시 마케도니아, 아가야에서 수개월 있으면서 그곳을 다시 순회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정한다. 왜 이 말을 하는가? 로마서를 언제 기록했느냐 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1, 2,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다시 순회할 때, 그중에서도 3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즉,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까지 가겠다는 전도 계획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다. 로마 복음화와 땅 끝까지 복음화하는 것이 바울의 천명, 소명, 사명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제자들에게 미리 편지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당분간, 수년 동안은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2) 로마서의 기록 동기 :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가 보지 않았지만, 바울이 양육했던 제자들과, 그 전에 마키다라방에서 복음을 받은 제자들 중에 로마까지 이른 제자들을 통해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로마교회에는 중요한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로마보다 먼저 들어가 할 곳이 예루살렘이었다.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에 제대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기에, 먼저 들어가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로마에 이르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편지로 먼저 빨리 전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바울은 급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여집사 비피를 통해서 전달하게 된다. 비피는 로마서의 어려운 내용을 다 전달할 수 있고 그 궁급중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훈련된 제자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쩌면, 로마에 편지를 보내야 하는 상황인데, 마침 로마로 갈 사람을 찾아서 그 편에 로마서 전달을 부탁하게 되었고, 거기에 비피가 쓰임받았을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비피가 사명자였다는 것이다. 그만큼 바울이 시간표를 급하게 보고 편지를 써서 보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3) 로마 교회가 맞닥뜨린 쟁점들 : 그렇다면 로마 교회 성도들의 고민과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율법과 복음, 믿음과 행함, 구원과 삶의 관계에 대한 문제였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맞는가, 행위가 잘못되었는데, 버려야 할 것, 끊어야 할 것도 많이 있는데,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가' 하는 갈등의 여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다. 로마 교회의 구성원 중에는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도 있었고, 로마 사람이나 헬라 사람, 이방인이었는데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각각 달랐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그들은 천 년 동안 할례를 행했다. 613가지의 율법과 제사, 절기가 있었다. 이것이 다 의미가 없다고 하면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그들은 할례와 같은 율법도 더불어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 출신 성도들의 문제는 달랐다. 그들은 율법을 지킨 적이 없다. 할례를 행한 적도 없다. 그런데 그들은 우상 종교를 믿을 때 가지고 있었던 타락적인 습관을 끊어버리기가 힘들었다. 그들 중에는 동성애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그 습관을 끊어버리려고 하니 쉽지 않았던 것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불신자까지도 다 아는 것이, 교회 다니면 술도 담배도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 끊고 교회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기가 힘들다. 일단 구원부터 받고 서서히 끊으면 되는데, 모르니까 부담을 가진다. 이런 갈등이 로마 교회 안에도 있었다. 행위, 삶, 구원에 대한 혼란이 있었던 것이다. 바울은 로마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순교를 각오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과거에 지켜왔던 유대교의 전통과, 불신자 시절 우

상숭배를 할 때 가지고 있었던 옛 제질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줘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1. 로마서에 기록된 믿음과 구원에 대한 말씀

첫 번째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주었던 말씀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믿음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내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이번 학기에 로마서를 백 번 읽으라고 했다. 그리고 기말고사 때 솔직히 자기가 몇 번 읽었는지를 쓰라고 했다. 그래서 시간마다 꺼내서 읽었는데, 그렇게 많이 읽어도 70번 정도밖에 읽지 못했다. 아무튼 그렇게 많이 읽는데, 읽을수록 이해가 안 됐다. 혼란스러웠다. 행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웃음) 그때는 확실한 복음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서를 강의하는 책을 몇 권 봤는데, 그 사람들도 모르고 있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가 유명하다고 해서 봤는데, 설교 한 편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런가 했는데 번역이 너무 엉망이었다. (웃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정확하게 로마서의 결론을 내시기 바란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반부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다는 복음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다. 그러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중요한 요점을 붙잡으면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

(1) 로마서 1:17의 믿음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듣게 되면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한다는 말이다. 상반절이 중요하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수는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일곱 가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일본 선교사님은 이 복음을 천 번 전했더니 나의 것이 되더라고 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계속 붙잡으면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오직 의인은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된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죄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의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하반절의 내용이다. "기록된 바." 히박국 2:4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말이다. 이미 히박국 선지자가 했던 말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미 증명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다. 하나님이 원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말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2)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은 로마서 5:8의 믿음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란다.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인간 중에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의로운 존재가 단 하나도 없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느냐고 한다. 그러면 심판하는 분이 악한 것인가? 판사가 악한가? 아니지 않나.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죄에 빠진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현상이 바로 십자가 현상이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 하면 여러분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흥분해서, 머리가 좋아서 (복음이) 믿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나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도 믿어지게 하신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것이 믿어진다. 믿음이 약할 때, 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니깐,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대통령도 교장선생님도 주어진 현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군대에서도 그렇다. 별 하나만 해도 자기 부대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부대에 별 세 개가 왔다. 3성 장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같은 음악을 세 번 반복해서 연주한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팔 들고 경례하고 있어야 한다. 힘들다. (웃음) 이 땅에 있는 별도 영광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뜻대로 무엇을 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그래서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다. 이성적으로는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것이다. 그 역사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전도대상자 속에 임하기를 축원한다.

(3) 로마서 8:2의 믿음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법적인 사건이다. 사형선고를 받았더라도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으면 사형 집행이 정지된다. 우리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법적인 사면을 받아, 죽음과 지옥 형벌을 면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사면받을 수 있는 조건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복한 사람들이 탈북해서 남한에 오면 집도 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돈도 준다. 왜 그런가? 생각을 바꾸

있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자기의 사상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했던 불신앙의 생각을 바꿔서,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사고를 바꿀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을 더하시는 것이요, 여러분은 지옥의 형벌에서 사면되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훌륭해서가 아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다.

(4) 로마서 10:9-10의 믿음이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을 믿고 입으로 진정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 일단 살려놓고 봐야 한다. 그래서 영접이 너무 중요하다. 전에는 우리가 복음 전해놓고 빨리 영접하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지 않는다.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데, 지금 제대로 영접해야 하지 않는가. 교회 가고 뭘 끊고 하는 것은 나중 일이다.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2.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로마서 후반부인 12장에서 16장까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새로운 삶에 도전해야 한다는 미션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특히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전도자의 삶과, 그 삶을 멋있게 살았던 모델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기록함으로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다. 로마서 16장에 나온 인물들은 대단한 인물들이었다. 완전 복음을 가지고, 완전 믿음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었다. 여러분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한다.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제시한 전도자의 삶이 무엇이었을까?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찾아보자.

(1) 로마서 12:10은 성도 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성도 간에 미워하고 갈등하면서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우리교회만 해도 계단이 양쪽에 있어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반대쪽 계단으로 다니면 된다. (웃음) 엘리베이터도 두 개니까, 마주칠 것 같으면 화장실 갔다가 다른 엘리베이터 타면 된다. (웃음) 안 마주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이가 갈리더라도 인사해야 한다.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야 한다.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다. 만약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처럼 ‘오금동書を 썼다면 그렇게 썼을 것이다. “싫은 사람과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거라.” (웃음) 로마서 12:10을 보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나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여러분을 다 존경한다. 존경은 그 상대에게서 나온다. 부모님도, 선생님도, 목사님도, 여러분이 먼저 존경해야 한다. 서로 그렇게 해야 한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했다. 그것은 상대방의 인격이 아니다. 나의 인격이다. 상대의 훌륭함이 아니다. 나의 성숙된 모습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2) 로마서 12:11에 보면, 성실함과 열정을 다해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현대인들이 점점 안 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다.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랩밴드, 성도들 중에 정말 바쁜 데도 부지런히 섬기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다른 교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 열정을 품고 섬기지 않는다. 점점 열정이 식고 있다. 로마 당시에 그랬던 모양이다. 할 것 다 하고, 놀 것 다 놀고, 급한 것 다 하고, 자투리 시간에 마지 못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 바울이 로마교회에 주었던 메시지를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기 바란다. 열심히 한다면 하면 할수록 ‘내가 이 정도 했다’ 하지 않게 되지 않나. “나는 부족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했는데, 내가 아무리 헌신해도 그 정도 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

(3) 로마서 12:12에 보면, 환난을 소망과 기도로 이기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여러분, 어떤 소망인가? 순교해야 하니까,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1:35를 보면, 고문을 당하면서도 구차하게 감옥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고 했다. “차라리 여기에서 그냥 저를 죽여주세요. 내보내지 말아 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저도 그분을 위해서 죽어보고 싶습니다.”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오히려 천국 소망 중에서 즐거워했다. 쉽지 않은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복음을 목상하고 말씀을 듣다가 이런 수준으로 계속 성장하시기를 축원한다. “환난 중에 참으며.” 여러분, 참는 게 중요하다. 가정에서 참지 못할 일이 참 많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다. 그런데 참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참 많다. 참음으로 해결되는 일이 많다. 참지 못해서 문제가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우리가 참지 못하지 않나. 말 한 마디를 못 참는다. 참으려면 굉장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나의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고 참는 것도 참 어렵다. 나의 생각을 표현하지 않도록 참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충만과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에 항상 힘쓰지 않으면, 인생을 돌아보면 다 실수만 있다. 여러분이 성령충만하고 참아 보라. 그것을 나중에 돌아보라. 참지 않고 하는 것은 나중에 다 후회가 된다. ‘이건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거야!’ 하고 행동한 것은 돌아켜보면 다 후회가 된다. 누구에게나 상처를 주게 된다.

(4) 로마서 12:13에 보면, 복지와 구제와 헌신의 삶도 살아야 되겠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5) 로마서 12:14에, 우리를 핍박하는 자,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라고 바울은 부탁하고 있다. 우리는 이 정도 수준이다. 불신자 수준이 아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19에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나는 거기까지는 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절까지 가기는 힘들더라. 한 번 해 봤었는데.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해 했는데 힘들었다. 이 갈리는 원수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먼저 가서 인사하고 밥을 사주려고 하니깐 창자가 꼬이고 혈압이 올랐다. 그래도 이 언약을 붙잡고 실천했다. 그것도 여러 번. 진짜 원수 같은 자를 두고 그런데 끝나고 돌아켜보고 나니깐 행복해지더라.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실천했어요. 제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기에서 또 실수하고 또 후회할 뻔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쪽 가게 해 주세요.” 그 후로도 계속 육하고 미워했다. (웃음) 육하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를 갈면서. (웃음)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주여, 반드시 쌓아놓으시옵소서.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웃음) 무슨 말인가? 저주 내리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다. 주님의 초점은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에 있는 것이다. 그래도 나는 숯불이 더 눈에 보이더라. (웃음) 부족하니까.

(6) 로마서 12:15에, 공감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함께 할 줄 모른다. 정서가 참 메달라 있다. 지적하고, 반대하고, 따지고, 실적 쌓고 하는 것은 잘 하는데, 공감하는 것은 안 한다. 황폐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랑이 넘칠 정도로, 미움, 지적 자체를 모를 정도로 거듭나기를 축원한다. 체질이 바뀌어야 한다. 참으려고 하면 힘들다. 건강에도 안 좋다. 그리스도의 체질로 거듭나는 여러분이 될 줄 믿는다.

(7) 로마서 12:16에 보면, 겸손을 배워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마음이 교만하거나 나만 잘 알고 있다고,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는 같이 할 수 없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왜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는가? 마음을 자꾸 높은 데 두기 때문이다. 낮은 데 처하지 않기 때문이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기 때문이다. 열등감이 있어서 잘난 척 하는 것이다. 모르니까 아는 척 하는 것이다. 또 아니까 아는 척 하는 것이다. 이러니까 결국 서로 마음을 같이할 수 없다. 자신을 배반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만든 자의 발까지도 닦아주신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시기를 바란다. 겸손하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관계는 없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

(8) 로마서 12:21에, ‘악에게 지지 말라’고 말씀한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한다. 지지 말라는 것만 생각하지 마라. 엘리트일수록 지지 않는 것에 인생을 걸더라.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주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선으로, 사랑으로 녹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결론 : 로마서 16장 사람들과 같은 응답을 받기 위한 미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요즘 우리는 30년, 8미션, 62가지 삶에 대해 도전하고 있다. 로마서 16장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모델로 살아야 할 인물들이 나오고 있다. 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도자의 삶 62가지들을 실천하고 실현시켰던 인물이었다. 결국 그들은 로마와 세계를 복음화했다.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을 줄 믿는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로마서 16장의 성도들과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1)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몸을 바쳐서 예배, 말씀운동, 훈련 현장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은 안 나오고도 할 수 있다. 특별한 환경과 조건이 있을 때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한다. 예배의 현장, 훈련의 현장에 여러분의 몸이 있기를 축원한다. 로마서 12:1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부탁하는 것이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로마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우상숭배, 육신의 정욕과 타락을 위해 자기의 몸을 드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다.

(2) 구원의 확신과 감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이 복음메시지, 복음소식을 계속 목상할 때,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어서, 영적 서밋의 자리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깊이 복음을 목상하며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다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생활 속에서 날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3)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현장이 로마와 땅 끝을 향해, 순교의 열정으로 도전해야 한다. 우리의 현장이 있어야 한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세계복음화, 로마 복음화라는 현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에게 천명, 소명, 사명으로 주신 로마 복음화, 세계복음화를 향해 순교자의 열정으로 도전했다. 이러한 전도와 선교의 열정 속에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바울 팀이 받은 응답을 모두 받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한다.